



◀ 두리농장 이상철 공동대표(좌측) 와 (주)성광시스템 서한희 부장

무인 자동 급이시스템으로 여름철 생산성을 높인다

충남 성환 두리농장

취재 : 조진현

지난 해 여름철 폭염으로 많은 양돈장의 모돈들이 수태율이 크게 떨어졌고, 겨우내 PMWS등 소모성 질병의 영향까지 겹쳐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심각한 자돈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돼지 출하두수 또한 높은 돼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2월 현재 전년비 00% 감소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올 8월 이전까지 계속 출하두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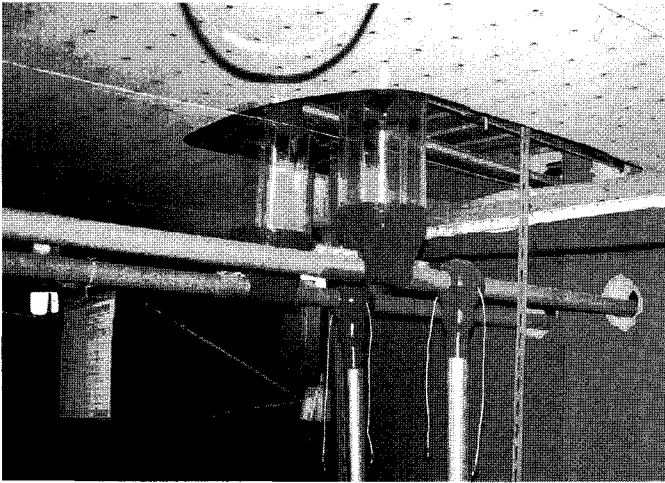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올 여름은 지난해에 이어 더

욱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돈농가들은 여름철 대비에 많은 걱정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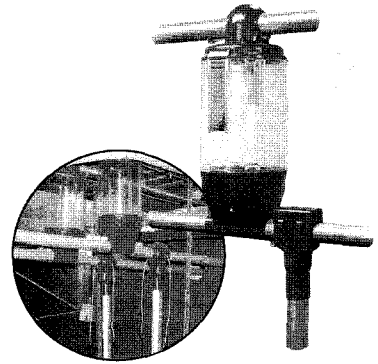
충남 성환 두리농장은 최근 새롭게 양돈농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무인 자동 급이시스템을 설치, 여름철 모돈 체형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보고 있어 찾아보았다.

인력절감 및 여름철 사료 섭취량 증가

2,000두 규모의 충남 성환 두리농장은 김용



▲ 농장내 무인자동 사료급이기 설치 모습: 돈사 천정이 낮아 계량통을 천정을 뚫고 설치했다.



▲ 무인 자동 사료급이기 계량통: 용량은 약 3kg이며, 사료를 위쪽 라인을 통해 개체별로 배송, 저장시킨 후 급이 공급라인을 타이머로 동작시켜 급이한다. 급이시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료공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주, 이상렬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 기존 양돈장을 인수해 확장 보수한 농장이다.

김용주 사장은 기존 농장을 보수하면서 모돈사에 자동급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2003년 봄에 각 돈방당 8두씩 5돈방(총 40두)에 무인 자동급여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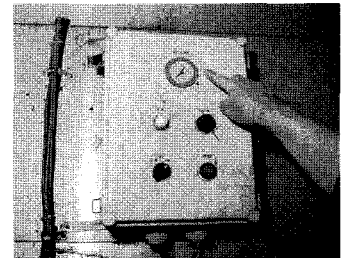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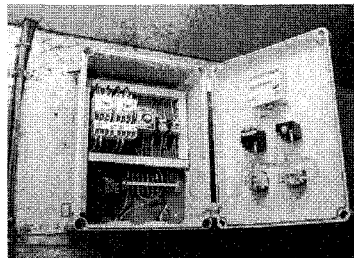
무인 자동급여 시스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료급여를 시간에 맞추어 자동 급여할 수 있으며, 인력 절감의 효과가 크다. 또한 신선한 사료를 소량씩 자주 모돈에게 급여할 수 있어서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며, 한밤중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사료를 급여하는 불편 없이 언제든지 사료를 급여할 수 있어, 관리자의 불편을 크게 덜어준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모돈들의 사료섭취량이 크게 떨어지며, 사료 통에 남은 사료의 변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벽이나 저녁 선선할 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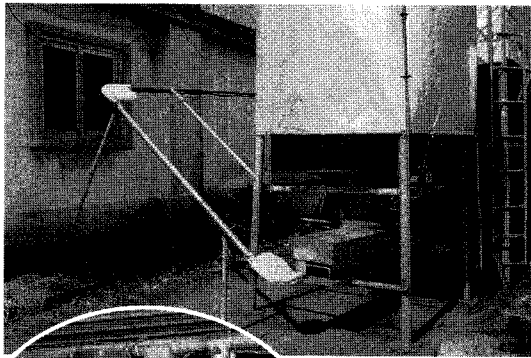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관리자들도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량을 한꺼번에 급여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무인 자동급여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료급여로 모돈의 바디컨디션(BCS)을 우수하게 관리하여 포유 시에도 많은 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 하여 여름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리농장에서는 여름철에 07:30~08:00, 18:30~19:00, 23:30~24:00 총 3회 모돈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밤 11시 30분에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무인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관리된 두리농장의 모돈



▲ 자동 급이 시스템 컨트롤러. <우측 사진> 급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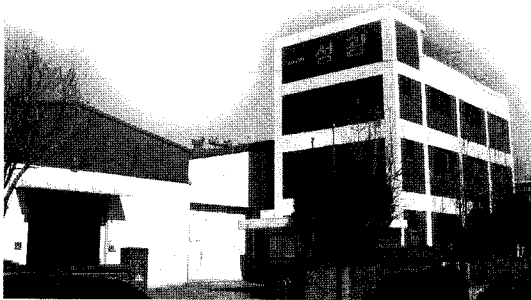
▲ <위> 사료빈은 여름철 고온을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웠으며, 좌측으로 자동급이 라인이 보인다.

◀ <좌측> 일반적인 자동급이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급이레버. 당길 때 소리가 나며 사람이 직접 라인별도 당겨주어야 한다.

은 포유돈사에서 한 여름철에도 두당 일일 5.5kg 달하는 사료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상렬 사장은 전한다.

설치비는 다소 비싸지만 장기적 이점 많아

그러나 이러한 무인 자동급여 시스템은 다소 설치단가가 높아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꺼려 왔다. 농장 구조마다 설치비가 다르나, 기



▲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공급업체인 성광시스템

존 자동 급여시스템에 비해 설치비가 약 1/3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김용주 사장은 “한번 설치하면 디스크 등 부품만 교체하고 농장과 생명을 같이하는 것이 급이기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한다면 초기 비용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히 설치비 효과 이상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사장은 또한 무인 자동 사료급이기를 설치할 경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꺼번에 사료가 쏟아져 내리면서 발생될 수 있는 먼지를 줄여주고, 자동급이기의 사료 레버를 내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아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심지어 기존 사료급이가 혹시 마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사료가 넘쳐 흐를 수 있는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김 사장은 현재 경기 화성에서 새로운 농장(영농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장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분만 스톨사까지 무인 자동급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급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새롭게 변경 설치하기는 힘들지만, 새롭게 시설을 신축하는 농가에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전한다.

이러한 무인자동 사료 급이 시스템은 이미 영국 등 양돈선진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리농장의 무인자동 사료 급이 시스템은 사료급이기 전문 생산업체인 (주)성광시스템이 보급했다. 성광시스템은 29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분한 농가 A/S를 위해 사료급이기 생산업체로써는 유일하게 전국 30여곳의 대리점 및 판매처를 가지고 대리점 체계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양돈**